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명」 통권 제26호

발행처 : 여명노인복지센터 ◎ 발행인 : 도성숙 ◎ 편집인 : 최 현

전 화 : (063) 224-5673 ◎ F A X : (063) 224-6896

560-860 전주시 완산구 배학길 4-3

◎ E-mail : careym@hanmail.net

◎ 카페 : <http://cafe.daum.net/careym>

◎ 인쇄·디자인 : 대흥정판사 063)254-0056

여명



아낌없이 주는 사랑

“바람처럼” 서로의 땀과 수고를 식혀 주세요.
여름의 “햇살처럼” 정열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밤하늘의 “별처럼”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요.
아름드리 “나무처럼”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 주세요.
가뭄의 “비처럼” 서로의 마음을 적셔 주세요.
“꽃처럼” 밝은 미소를 주고받아요.
“바다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해요.
“하늘처럼” 넓은 가슴으로 서로를 안아 주세요.
높은 “산처럼”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강물처럼” 잔잔히 서로를 믿고 지켜보세요.

출처: 좋은글 모음중에서



CONTENTS

02 아름다운 글이 있는 곳

03 여는 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소영 (운영위원)

04 월별 지원서비스

10 현장의 소리

11 2014 회계보고 / 도움의 손길

12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여명노인복지센터'



이소영 운영위원
(금산초교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옛말,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란 말도 이제 무색할 만큼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6년이 넘는 시간동안 초심을 잃지않고 한결 같이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명노인복지센터' 사람들입니다.

남은 여생을 쓸쓸히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주일에 한번은 꼭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그분들은 어르신들께는 남편이요, 딸이요, 친구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번 부모님께 전화 드리기도 어려운데 16년을 한결 같이 어르신들의 삶을 살피온 그분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각자 저마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주위를 둘러 볼 겨를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 이 시대에 자신을 내려놓고 어르신들을 묵묵히 섬기는 모습에서, 저는 죄인을 섬기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진한 향기를 느낍니다.

2014년은 크나큰 사건 사고가 많아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들도 무겁고 힘들었는데,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여러 사건들과 뉴스들로 떠들썩하고 우리의 마음도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여명노인복지센터' 를 보며 대한민국의 소망을 봅니다.

힘내세요. '여명노인복지센터'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귀한 하늘의 보물입니다.



방문 서비스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말벗 및 우애, 가사지원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매주 금요일 두 분씩 선정하여 따끈한 영양죽을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유 지원

아름다운 재단 후원으로 평화동 김○ 어르신께 난방유 200리터(27만원 상당)를 지원해드렸습니다. 후원해 주신 아름다운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노도케어 사업발대식

설 명절 물품 지원

가족의 따뜻한 숨결이 그리운 설 명절! 홀로 외로이 명절을 지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께 찹쌀과 조기, 떡국떡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비록 추운 겨울이었지만, 우리의 나눔이 어르신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데워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환한 웃음과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꼭~약 잡고 말합니다.



“작은봉사 큰기쁨” 봉사팀 활동

1 January ~ 10 October

“작은봉사 큰기쁨” 봉사팀이 매일 어르신 4분 가정에 방문하여 집안 대청소와 정서지원 실시해주셨습니다.

방문 때마다 밑반찬을 준비해주시고 고장난 샤워기를 교체해 주시며 천정형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수고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눔 보따리’ 물품지원

아름다운 가게 후원으로 대상자 어르신 10분께 쌀 10kg 과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쌀과 다양하고 풍성한 생활용품을 보시더니 어르신들은 부자가 된 듯 든든하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아름다운 가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February

노인 우울증 심리검사 실시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26명 어르신들께 노인 우울증 심리검사와 치매 테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어르신들 대부분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고, 소수 몇 분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어르신 영화관람

“수상한 그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가나 취미생활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함께 재미난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맛있게 식사하고...
 우리 어르신들께 신선한 외출이 됩니다. 어르신들! 좋으셨나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부노인복지센터 비전홀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 만연된 성희롱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봄꽃 나들이

말 그대로 봄이 타는 듯한 광경입니다. 꽃잔디의 보라빛깔과 철쭉의 울긋불긋함, 이름조차 다 헤아리지 못하는 다양한 꽃나무들이 각기 저마다 형형색색의 축제를 벌이며 향연을 베풁니다. 해마다 그렇게 예쁜 옷으로 갈아 입고 우리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봄꽃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고맙다! 꽃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행복을 주려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중복지원

내리쬐는 따카운 벌에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버리는 삼복더위!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나마 기운 내시라고 닭을 드렸습니다.
닭 한 마리 푸~~욱 삶아 드시고 올 여름도 잘 이겨보시게요!!





추석물품지원

가을이 가슴 거리만큼 다가온 듯한 좋은 날! 우리 어르신들께 추석에 쓸 햅쌀과 조기, 명태포를 전해드렸습니다. 명절이 되어야 자식들,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르신들! 그마저 찾아올 수가 없는 외로운 우리 어르신들께 저희의 손길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담아 정성껏 기쁘게 전해드렸습니다.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효도큰잔치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 효도큰잔치가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가수 현숙씨 공연이 있었는데 여러 재가센터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현숙씨의 노래를 듣고 환호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어찌나 즐거워하시던지 마치 아이돌 가수들을 보며 열광하는 청소년들처럼 즐거워보이셨습니다. 보는 저희 마음의 어께도 덩달아 덩싱덩실~~



거리 홍보캠페인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주간선포 일환으로 시설 종사자 약 150 여명이 오거리광장과 풍남문 광장에 모여 발대식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상가들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보행자 중심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제로전북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였습니다.

영생고 자원봉사활동

영생고 학생 3명이 서신동 이○ 어르신택을 방문하여 대청소 및 목욕도움과 정서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 사랑나눔실천운동 후원금 배분사업

2014 사랑나눔실천운동 후원금 배분사업 신청에 저희 어르신 3분이 선정되어 각각 40 만원씩 지원해드렸습니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큰 액수에 놀라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추천해 주었다는 것에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받으시는 어르신들 마음도 참 감동적입니다!!



영생고 자원봉사활동
대청소 및 목욕도움, 정서지원

대한민국 치즈스타 임실\치즈 프리미엄 플러스 여행

가을의 한 중턱 어느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임실 치즈마을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설레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쫓긋하신 모습이 마치 유치원 꼬마들 같았습니다. 직접 비누도 만들어보고, 피자를 도우에서부터 토핑까지..임실의 대표명물 치즈까지 만들어 보니 그렇게도 재미난가봅니다. 직접 만든 피자과 치즈돈까스를 어찌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다음에 꼭 다시 모시고 와야겠다~~싶더라고요 후훗^^



11
November

전주시 재가협회시설 종사자 단합대회

우리 가까이 이렇게 멋진 산책길이 있었구나!!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듯 여기저기 나무들이 옷을 벗은 흔적으로 도리어 가을 정취를 더 숙성시키던 어느 날! 군산 옥산저수지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좋을만큼 걸었습니다.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영생고 자원봉사활동



전북재가노인협회
시설종사자 세미나

12
December

소외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꽃밭정이노인복지관 후원으로 어르신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불셋트를 선물해드렸습니다. 환한 꽃무늬의 두툼한 이불은 받는 어르신뿐 아니라 드리는 저희까지도 따뜻하게 데워 주었습니다.



성탄나눔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때에 저희도 어르신들께 맛나고 영양 좋은 소고기 한근 톱 끊어 드렸습니다. Merry Christmas!

해님이축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친 수고한 우리 센터 직원들과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해님의 밤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며 웃고, 수도도 떨고... 자녀들까지 다 모여 함께 어우러진 해님의 밤! 서로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노케어해단식

| 현장의 소리 |

문채원(초등)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설날 선물을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함께 사진을 찍을 땐 마치 영화를 찍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과 모두 함께 해서 더 좋았다!



주미애(운영위원)

봉사자로 첫 발을 뗄 때가 생각나네요! 어르신들과 새로운 만남의 긴장속에서 애써 웃으며 봉사자로서 이미지 관리에 신경이 더 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품 속에서 봉사자가 아닌 이웃으로서 참 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미례(자원봉사자)

사랑하는 재가센터 직원여러분! 긴시간 함께 걸어오며 때론 넘어지더라도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는 서로가 있어 행복했음을 잊지마시고 올해도 홀로가 아닌 함께함의 축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되세요!



문다원(유치원)

(설날 물품지원봉사활동의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1. 신기했다 2. 놀랐다 3. 좀추웠다
4. 즐거웠다 5. 신났다 6. 재밌었다
7. 두려웠다.



이정후(초등)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혼자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설물품배달을 갔었다. 막상 출발하니 좀 떨렸지만 하다보니 재미있었다. 사진도 찍고 물품도 드리고 나중에 다녀올 곳이 한 곳 밖에 안남았을 땐 너무나너무 아쉬웠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설물품을 배달 할 직원 선생님들 아자 아자 화이팅!



정숙희(운영위원)

명절선물을 자원봉사를 할때마다 느끼는 건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선물 셋트구나”합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하고 배려깊은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 전해주는 봉사자까지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어찌나 반겨 주시고 고맙다 인사를 하시는지, 센터 직원들이 받아야 할 인사를 제가 다 받는 듯합니다. 직원분들! 감사하고 올해도 화이팅!



2014
회계보고

수 입			지 출		
구 분	구 분	금 액	구 분	구 분	금 액
보 조 금	경상보조금	92,721,250	사무비	인건비	140,404,361
후 원 금	지정후원금	1,470,000		업무추진비	300,000
	비지정후원금	9,412,517		운영비	8,807,955
전 입 금	전입금	58,666,410	재산조성비	시설비	553,600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11,589	사 업 비	사업비	12,215,850
이 월 금	전년도 이월금	-	차 기 이 월	차기이월	-
합 계		162,281,766	합 계		162,281,766

2014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지정후원금	1,470,000	1,470,000
비지정후원금	9,412,517	9,412,517
후원물품	2,713,900	2,713,900
합 계	13,596,417	13,596,417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물질후원 |

강미현 권태균 권현정 김기현 김대곤 김성희 김요셉 김인순 김현석 김화영 노영숙 노인숙 도성숙 문세권 문규원 문다원 문도원 문채원 박래승 박완철 박은영 신향순 양은희 오정순 유덕순 유 미 유정자 이국진 이금자 이마트 이상례 이소영 이수영 이정후 이현미 이희준 임선아 임은희 장한나 정숙희 주미애 차상미 천홍지 최규홍 최명순 최미선 최순철 최승호 최정애 최 현 황은희 제2청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물품후원 |

낙원떡집(떡), 대주상사(음료수, 과자, 떡), 본죽중화산점(죽), 승현상사(냉동식품), 진보식품(칼국수), 작은 봉사 큰 기쁨(찰밥, 김 만두), 코코호도(호도빵), 하나로떡집(떡), 하림전주완산대리점(닭), 형제유통(밀반찬류), 푸드뱅크(음료, 야채, 빵, 과자 외)

| 자원봉사자 가족 |

권태균 김화영 김요셉 노영숙 도성숙 박래승 박지숙 윤미례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정숙희 조계석 주미애 최명주 최명순 윤성찬 김참렬 박준강 조인찬 이정후 문채원 문다원 김기현 노정숙 박은영 이소영 김윤일 김채연 김준연 라유진 라유림 이미경 진성택 최영순 김종문 윤광선 이정철 노향래 문세권 작은봉사큰기쁨봉사대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십니다.

◎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55세이상 노인으로 저소득 생활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잃어버린 기쁨과 건강을 찾아 드립니다.

여명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예금주 : 여명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